

## CAST

### 바이올린\_ **율리아 피셔**

Julia Fischer\_ Violin



다양한 재능을 두루 겸비한 아티스트로 잘 알려진 율리아 피셔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뿐만 아니라 피아니스트, 실내악 연주자, 바이올린 강사로서도 자신의 역량을 한껏 발휘하고 있다. 독일 뮌헨에서 태어난 율리아 피셔는 3세에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피아니스트였던 그녀의 어머니 비에라 피셔의 권유로 몇 달 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과 9세의 나이로 뮌헨 음악 아카데미에 최연소 입학해 명망 높은 바이올린 교수 아나 추마첸코의 제자가 되어 그와 함께 학업을 이어나갔다. 율리아 피셔는 12세 때인 1995년, 예후디 메뉴힌 국제 콩쿠르에서 1위에 입상하며 이른 나이에 음악가로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고, 그 후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리카르도 무티, 예사 페카 살로넨, 유리 테미르카노프, 프란츠 벨저 뫼스트 등 세계적인 거장 지휘자들과 협연하며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섰다.

율리아 피셔는 2008년 프랑크푸르트 알테 오페에서 피아니스트로서의 데뷔 무대를 갖기도 했다. 1부에서는 생상스 바이올린 협주곡 3번을, 2부에서는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며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로서의 역량을 한 연주회에서 동시에 선보여 관객의 뜨거운 갈채와 무결점의 연주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율리아 피셔는 2011년 알렉산더 시트코베츠키, 닐스 뮌케마이어, 벤자민 니페네거와 함께 현악사중주단을 창단했으며, 바쁜 연주 일정 속에서도 멤버들과 함께 유럽을 중심으로 실내악 무대에 꾸준히 오르며 실내악 연주자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율리아 피셔는 2019년 2월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포츠담 캄머아카데미와 그녀의 제자인 예바 차바로, 루이스 반도리와 의 연주, 슈타른베르크 호수에서 열리는 음악축제에서의 정기적인 마스터클래스 진행 등 재능 있는 학생들을 꾸준히 양성하고 이끌며 그녀만의 음악적 삶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추구하고 있다.

율리아 피셔는 세계적인 음반 레이블인 펜타톤과 데카를 통해 수많은 음반을 발매하며 꾸준히 국제적인 찬사를 받아왔으며, 에코 클래식 상, 디아파종 상, BBC 뮤직 매거진 상 등의 다양한 음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 그녀는 'JF클럽'이라는 자신만의 음악 플랫폼을 구축해 클래식 음악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행보를 통해 고품질의 오디오 및 비디오 서비스 뿐 아니라 음반 신보 프리뷰, 그녀의 음악과 레퍼토리에 대한 고찰 등을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다. 그녀가 연주한 이자이 6개의 바이올린 소나타,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시마노프스키 바이올린 소나타를 'JF클럽'에서 만나볼 수 있다.

키릴 페트렌코 지휘의 바이에른 슈타츠오페와의 협연(함부르크 엘브필하모니, 뉴욕 카네기홀), 빈 심포니의 상주 음악가로서 참여한 필리프 조르당과의 협연 등 성공적인 음악적 행보를 보이며 지난 시즌을 마무리했던 율리아 피셔는 오랜 실내악 파트너인 닐스 뮌케마이어, 다니엘 뮐러 쇼트와의 유럽 투어로 2018/19 시즌의 시작을 알렸다. 이를 시작으로 런던 필하모닉(지휘: 블라디미르 유롭스키)과 서울-타이베이-베이징-상하이로 이어지는 아시아 투어, 드레스덴 필하모닉(지휘: 미하엘 잔데를링)과의 한국, 일본 연주가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와 함께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대규모 독일 투어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힐러리 한, 재닌 안센과 함께 21세기 바이올린계를 이끌어갈 현의 여제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율리아 피셔는 연방 공로 십자훈장, 그라모폰상, 독일 문화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그녀는 현재 1742년산 지오반니니 바티스타 과다니니와 2018년 필립 아우구스틴이 제작한 악기로 연주하고 있다.